

제40절의 숨겨진 역사 - 제2편

미국, 애국법, 그리고 예언의 성취로 가는 길

Jeff Pippenger

2024-09-19

우리는 지난 글을 "2001년에 미국 정부가 애국법을 법으로 제정했다."라는 문장으로 마무리했다.

일요일 준수 강제를 위한 이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행동이 초래할 결과에 눈이 멀어 있는 이들이 많다. 그들은 자신들이 종교의 자유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성경적 안식일의 주장과 일요일 제도가 의지하는 거짓된 토대를 한 번도 이해하지 못한 이들도 많다. 종교 입법을 지지하는 어떤 운동이든 실제로는 교황권에 대한 양보 행위이며, 교황권은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양심의 자유와 전쟁을 벌여 왔다. 일요일 준수는 소위 그리스도교적 제도로서의 존재를 '불법의 비밀'에 빚지고 있으며, 이를 강제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주의의 초석을 이루는 원칙들을 사실상 인정하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자국 정부의 원칙을 저버리고 일요일법을 제정하게 될 때, 이 행위로 개신교는 교황주의와 손을 잡게 될 것이며, 그것은 오랫동안 다시 적극적 전체정으로 도약할 기회를 간절히 엿보아 온 그 폭정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증언, 5권, 711쪽.

1888년은 2001년을 예표했으며, 바로 그때 블레어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하여 예언적으로 말하지 못했다. 그것은 서기 66년의 표징이 되었는데, 시작되었다가 신비롭게 철수된 포위전의 표징이었다. 짐승의 우상에 대한 시험 기간이 둘이며, 두 번째 기간은 321년으로 예표된 미국의 일요일 법으로 시작하고, 538년으로 예표된 세계적 일요일 법이 완전히 집행될 때 끝난다고 이해된다면, 첫 번째 짐승의 우상 시험 기간의 시작 또한 어떤 형태로든 일요일 법이 언급되는 예표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예언적으로 요구된다. 1888년에 블레어 법안은 국가적 일요일 법을 강제하려는 시도였고, 1888년은 계시록 18장의 천사가 내려와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는 때를 지시한다.

애국자법은 미국에서 짐승의 우상 시험의 때를 시작하는 일요일 법령의 예표이다. 미국은 일요일 법령을 시행할 때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의 성취로서 용처럼 말하게 된다. 그 법을 시행할 때 미국은 용처럼 말할 것이며, 그 일요일 법령은 짐승의 우상이 미국에서 완전히 형성되었음을 드러낸다. 그 시점에 미국은 유예 기간의 잔이 가득 차게 되고, 국가적 배도 뒤에는 국가적 파멸이 뒤따른다. 그때 삼중 연합이 성립되면서 미국은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이기를 그만두게 된다.

알파와 오메가는 항상 시작으로 끝을 묘사하며, 미국의 시작 때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으로서 미국의 시작을 표시하는, 미국이 예언적으로 말한 세 번이 있었다. 1776년의 독립선언, 1789년의 헌법, 그리고 1798년의 외국인 및 선동법은 미국이 예언적으로 말한 최초의 세 번을 가리킨다. 그 세 문서는 각각 미국의 발언을 대표했다. 그 세 단계는 1798년, 곧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으로서 미국이 통치하기 시작한 때로 이어졌다. 미국의 시작에 있었던 그 동일한 세 이정표는,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으로서 미국의 통치가 끝나는 때로 이끄는 세 이정표를 나타낸다.

애국법은 미국이 여섯째 왕국으로서 결말에 이르는 과정에서 세 번 '말한다'는 사건 중 첫 번째이다. 세 번째 '말하기', 즉 여섯째 왕국의 종말을 가리키는 것은 일요일법이다. 그 역사 한가운데에서 2022년에 시작된 1월 6일의 펠로시 재판이 개시되었다. 그 재판들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었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직접적으로 거부한 것이었으며, 그 법적 공세는 단순한 사실의 조작이 아니라 헌법에서 규정된 '절차적' 및 '실체적' 법에 대한 실제의 직접적 공격이었다.

2001년의 패트리엇법은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5조와 수정 제14조 모두에 나타나는 "적법절차 조항"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었다. 이 조항들은 누구도 법의 적법절차 없이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것이 2001년이었고, 2022년에는 헌법에 대한 공격이 "절차적 적법절차"와 "실질적 적법절차" 모두에 초점을 맞추었다. "repudiate"라는 단어는 부인한다는 뜻이며, 화이트 자매는 미국에서 일요일 법이 시행될 때 헌법의 모든 원칙이 부인될 것이라고 밝힌다.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며 교황제도를 강제하는 칙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의로움에서 완전히 떠나게 될 것이다. 개신교가 깊은 골을 넘어 로마 권세의 손을 붙잡기 위해 손을 뻗고, 또 심연을 가로질러 강신술과 손을 맞잡으며, 이 삼중 연합의 영향 아래에서 우리나라가 개신교적이고 공화주의적인 정부로서 그 헌법의 모든 원칙을 저버리고 교황권의 거짓과 미혹의 전파를 위한 조치를 마련할 때, 그때 우리는 사탄의 놀라운 역사의 때가 왔고 종말이 가까웠음을 알게 될 것이다.

로마 군대의 접근이 예루살렘의 임박한 파괴를 제자들에게 알리는 표징이 되었던 것처럼, 이 배교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한계에 이르렀고 우리 민족의 최악의 분량이 가득 찼으며 자비의 천사가 이제 날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는 표징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선지자들이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묘사한 그 환난과 고통의 장면들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박해받는 신실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하늘로 올라간다. 그리고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순교자들의 무덤에서, 바다의 무덤에서, 산중 동굴에서, 수도원의 지하 묘실에서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들이 있다. '거룩하고 참되신 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주께서 자신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 온 하늘이 분주하다. 온 땅의 재판장이 머지않아 일어나셔서 모욕당한 그분의 권위를 신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율법을 공경하며 짐승이나 그의 우상의 표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표가 새겨질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계시하셔서, 그분의 백성이 반대와 진노의 폭풍우에 맞설 준비를 하게 하셨다. 앞에 닥칠 일들에 대하여 경고를 받은 자들은 다가오는 폭풍을 평온히 기다리며, 환난의 날에 주께서 자신의 신실한 자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한가한 기대 속에 있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실히 일해야 한다. 지금은 하찮은 일들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때다. 사람들이 자고 있는 동안, 사탄은 주의 백성이 자비나 공의를 누리지 못하도록 분주히 일을 꾸미고 있다. 일요일 운동은 지금 어둠 속에서 전진하고 있다. 지도자들은 진정한 쟁점을 숨기고 있으며, 그 운동에 합류한 많은 이들조차 그 밑바탕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보지 못한다.

그들의 표방은 온건하고 겉으로는 기독교적인 듯하지만, 말할 때가 되면 용의 영을 드러낼 것이다. 닥쳐오는 위험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보여 줌으로써 편견을 누그러뜨리도록 힘써야 한다. 그들 앞에 쟁점이 되는 진정한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조치들에 대해 가장 효과적인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선지자는 말한다. '악한 자는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 중에는 깨닫는 자가 없을 것이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증언 5권, 451, 452쪽.

엘렌 화잇은 일요일 법령을 여러 말세의 이정표들과 결부시키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의 말은 "그분의 백성이 반대와 분노의 폭풍에 맞서 설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기 위하여, 마지막 날들에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를 드러낸다. 그러므로 이 대목에서 그녀가 서로 연결해 놓은 이정표들은 주의 깊게 검토되어야 한다. 나는 그 기준점이 미합중국 헌법과 서로 연관된 상징으로서의 국가의 '말함'에 초점을 맞춘 예언의 선이라고 제안한다.

즉, 1888년의 블레어 법안, 2001년의 애국자법, 그리고 2022년부터 민주당과 글로벌리스트 공화당원들이 수행한 정치적 기소는 각각 헌법의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었다. 1888년은 일요일 예배의 강제 시행을, 그리고 2001년은 영국법에서 로마법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2022년에는 "실체법"과 "절차법"이 공격받았다.

실체법은 개인과 조직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절차법은 분쟁을 해결하고 개인과 조직의 권리와 의무를 집행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다. 법은 어떤 행위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정한다. 실체법은 형법, 민법, 계약법 등을 포함한 많은 법 분야를 포괄한다.

형법은 실체법의 훌륭한 예이다.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로 간주되는지와 그 범죄에 대한 형벌을 규정한다. 반면 민사법은 계약 위반, 신체 상해, 또는 재산 분쟁과 같은 개인과 단체 간의 분쟁을 규율한다.

실체법은 일반적으로 법률, 규정, 그리고 판례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은 국가 의회나 주 입법부와 같은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이며, 규정은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규칙과 절차이다. 판례법은 법관이 법률, 규정, 그리고 헌법을 해석함으로써 형성하는 법이다.

절차법은 법적 절차를 규율하는 규칙을 말한다. 이는 소 제기의 초기 단계부터 최종 해결에 이르기까지 사건이 법체계를 통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규정한다. 절차법은 민사, 형사, 행정 절차 등 다양한 법 영역을 포괄한다. 절차법의 목적은 법적 절차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또한 분쟁 해결을 위한 틀을 제공하고, 판사, 변호사, 소송당사자를 포함한 법적 절차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무엇이 요구되는지 알 수 있도록 보장한다.

실체법과 절차법은 정의가 실현되도록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실체법은 개인과 조직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절차법은 분쟁을 해결하고 그 권리와 의무를 집행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다시 말해, 실체법은 어떤 행위가 적법한지 위법한지와 위법행위의 결과를 규정하고, 절차법은 그러한 법적 쟁점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규정한다.

2001년, 애국자법은 인신보호권을 폐지했다. "Habeas corpus"는 라틴어로 "그 신체를 산출하라"라는 뜻이다. 이는 법원이 한 사람의 구금이 적법한지 심사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불법 구금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법 원칙을 말한다. 인신보호권은 많은 법체계, 특히 영국 보통법의 영향을 받은 체계에서 근본적 권리다.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을 구금할 수 없도록 보장하고, 판사 앞에서 자신의 구금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한다.

미국 헌법 수정헌법 제5조와 제14조에는 모두 "적법절차 조항"이 있다. 이는 누구든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적법절차 이론을 절차적 적법절차와 실체적 적법절차의 두 갈래로 발전시켜 왔다. 2001년 애국자법과 함께 인신보호권이 권리로서의 지위를 상실했고, 영국법이 로마법으로 대체되었다. 영국법은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사람은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로마법은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사람은 유죄로 간주된다고 본다. 2022년의 펠로시 재판에서는 절차적·실체적 적법절차 모두가 짓밟혔다. 펠로시 재판에서는 실체법과 절차법이 헌법이 의도한 목적과 정반대로 적용되었다.

실체적 적법절차와 절차적 적법절차의 구분은 미국 헌법의 체계 내에서, 특히 수정헌법 제5조 및 제14조의 적법절차 조항 아래에서 각 개념이 보호하는 법과 권리의 서로 다른 측면에 있다.

실체적 적법절차는 어떤 절차가 사용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정부가 침해할 수 없는 기본적 권리와 자유에 관한 것이다. 이는 적법한 절차가 준수되었더라도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특정 권리를 보호한다. 실체적 적법절차는 사생활의 권리, 결혼할 권리, 자신의 자녀를 양육할 권리처럼 기본적으로 여겨지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러한 권리는 중대한 국가 이익이 없는 한 정부의 개입으로부터 보호된다. 이는 법과 규제가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부 권력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한다.

절차적 적법절차는 정부가 개인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하기 전에 따라야 하는 절차에 관한 것이다. 이는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개인이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한다. 절차적 적법절차는 정부가 누군가의 권리를 박탈하기 전에 통지, 공정한 심리, 진술할 기회 제공 등 일정한 단계나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법이 집행되는 방식, 즉 그 집행 방법을 중시하여 정부가 정당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도록 보장한다.

펠로시 재판이 시작된 이후 나타난 법적 공세는 실체적 적법절차와 절차적 적법절차 모두를 부정하는 것이다. 미국 시민의 기본권이 공공연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박탈되었다. 펠로시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도 미국의 알파벳 기관들의 거짓 깃발 작전과 노골적인 부패가 꾸준히 폭로되어 왔지만, 펠로시 재판이 시작된 이후 양당의 글로벌리스트들이 동원한 법적 절차는 절차적 적법절차의 파괴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 글의 앞부분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었다. "종교 입법을 지지하는 어떤 움직임도 실제로는 교황권에 대한 양보 행위이다. 교황권은 오랜 세월 동안 양심의 자유에 맞서 지속적으로 전쟁을 벌여 왔다. 일요일 준수는 이른바 그리스도교 제도로서의 존재 자체를 '불법의 비밀'에 빚지고 있으며, 그것을 강제하는 일은 로마 가톨릭주의의 바로 초석을 이루는 원칙들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정부의 원칙을 그토록

저버려 일요일 법을 제정하게 될 때, 개신교는 이 조치에서 교황주의와 손을 잡게 될 것이며, 그것은 오랫동안 다시금 전면적인 전제정치로 뛰쳐나올 기회를 간절히 엿보아 온 폭정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 외에 다름없다."

미국 헌법으로 표현될 수 있는 역사적 흐름 속에는, 미국의 시작과 끝에서 각각 헌법의 어떤 요소를 나타내는 세 가지 특정한 이정표가 있다. 그 세 가지 이정표는 모두 정치적 행위이며, 따라서 미국이 말하는 것을 상징한다. 시작 부분의 그 세 번째 이정표, 곧 1798년을 표시한 것은 외국인 및 선동법이었고, 끝부분의 그 세 번째 이정표는 미국이 일요일 법률을 집행하고,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의 성취로서 용같이 말할 때이다.

미국의 예언적 역사는, 땅으로 상징된 바와 같이, 그 땅이 입을 벌려 용의 박해의 홍수를 삼켜 버렸을 때 시작된다.

뱀은 여자를 뒤쫓아 자기 입에서 홍수 같은 물을 토해 내어 그녀가 그 물에 휩쓸려 가게 하려 했다. 그리고 땅은 여자를 도와 입을 열어 용이 자기 입에서 토해 낸 그 홍수를 삼켜 버렸다. 요한계시록 12:15, 16.

1776년에 땅에서 올라올 짐승, 곧 궁극적으로 1798년에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이 될 그 짐승은 유럽 왕실의 폭군들과 교황 교회의 폭군들에 반대하는 헌법을 가진 나라를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박해의 홍수를 삼켰다.

1776년의 독립선언서는 2001년의 애국법의 전형이었다. 1789년의 헌법은 2022년에 시작된 펠로시 재판의 전형이었다. 1798년의 외국인 및 선동법은 미국의 일요일법의 전형이었다.

미국 애국자들의 1776년 독립선언은 2001년 애국자법으로 인한 독립 상실을 알리는 선언을 상징했다. 1789년 헌법은 2022년에 시작된 펠로시 재판을 상징했다. 외국인 및 선동법은 일요일법을 상징한다. 헌법의 모든 원칙을 거부해 온 역사는 일요일법에서 끝나는 점진적인 헌법 전복을 상징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다니엘서 11장 40절의 숨겨진 역사에서 서로 일치한다. 이 글에서 우리는 Testimonies 5권 451, 452에서 네 단락을 인용했다.

다음 글에서 그 문단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